

#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김홍식 장로 / AFF USA 이사장

## 소리와 아프리카

우리 몸에서 시력 다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감각, 청력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되어 65세 이상에서 1/3 이상, 75세 이상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청력 감퇴를 겪는다.

소리가 귀에 도달하면 갈매기처럼 생긴 외이가 소리를 모아서 중이로 보낸다. 소리가 중이의 입구인 고막을 진동 시키면 그 자극은 3개의 작은 중이 뼈를 통과해 이동하고 이 소리가 체액으로 가득한 내이로 전달된다. 이 진동으로 내이의 작은 털 세포가 자극되며 구부러지게 되면서 뇌로 신호를 전송하게 되고 이 신호는 뇌에서 소리로 해석되어진다.

청력 상실의 원인은 바깥에서 내이에 소리가 도달 하는데 방해가 되는 귀지 축적, 고막 문제, 중이염이 있을 수 있겠고, 소리는 내이에 도달하지만 신경자극으로 바뀌지 못하거나, 신경자극으로 바뀌어도 뇌에 전달이 안 되는 경우, 예로 소뇌 종양, 소음 신경 손상, 머리 손상, 자가면역질환, 혹은 유전 질환들이 있을 수 있다.

청력이 좋지 않은 분들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고, 관심 있게 보고 피차에 노력해야 한다. 대화를 잘하시는 분들의 방식을 곰곰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목소리가 크지 않으나 또박 또박 이야기 하신다. 상대방을 향해 눈을 쳐다보면서 이야기 하면 입모양을 보면서 말을 알아듣기도 좋아 깊은 대화가 된다. 혼자서 쳐다보지도 않고 상대방 방향으로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중얼거리면 잘 들리지도 않은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무슨 대화를 하든지 안부와 감사의 말,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덧붙이는

대화는 상대방을 감동시킨다.

노인성 난청의 청력상실은 대개 높은 음성 주파수에서 영향이 있는데, 상대방은 잘 듣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 하면 대개 주파수가 낮은 모음을 큰소리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력이 떨어질수록 큰 목소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큰 소리보다도 놓치기 쉬운 중요한 소리를 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세상은 온통 큰 소리로 “더 많은 물질을 가져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새로운 것이 많다. 당신은 그동안 고생 많이 하였기에 더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외친다, 반면, 작지만 중요한 소리도 또박 들린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다. 불필요한 것을 더 가질 이유가 없다. 귀중한 것을 나눌 때이다.”

아프리카에 가보면 여러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고요히 나무를 흔드는 바람 소리, 지붕을 때리는 소낙비 소리, 새벽에 들려오는 새소리, 혹은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는 코끼리들의 물 뿜는 소리, 함께 달리는 들소들의 소리, 들관 멀리서 들리는 북소리. 그러나 가장 가슴에 남는 소리는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의 신이 나면서도 애절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이다. 그들의 가락을 듣고 있으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리도 들린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프리카의 소리는 아주 멀리 들리는 듯, 그러나 매우 또박 하게 들려온다.



#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우간다



모두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는가요?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은 AFF 프로젝트가 있어서 아미재가 혈레벌떡 달려왔어요.

혹시 우간다의 중고등학교 건축 및 운영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우간다 소로티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학교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개교한 소로티열린초등학교는

올해 처음 7학년을 맞아 졸업국가고시 모의고사에서

소로티시 전체 2위를기록했죠. (애들이 잘했어!!!)

또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Joy Uganda 라디오 방송국이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의 적절한 조화! 또 난로처럼 따스한 마음을 가진 당신이라면~~~~  
함께해주시길 거죠?

1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⑨

**우간다**  
중고등학교 건축 및 운영 사업

AFF

2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⑨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우간다 소로티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학교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FF

3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⑨

중고등학교는  
2023년에 설립될 예정이며,  
이미 개교한 소로티열린초등학교는  
올해 처음 7학년을 맞아  
졸업국가고시(PLB) 첫 모의고사에서  
소로티시 전체 2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AFF

4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⑨

또한, Joy Uganda 라디오 방송국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간다의  
더욱 다채로운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AFF

5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⑨

AFF



#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짐바브웨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친 당신의 피로를 녹여드리기 위해 따뜻한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AFF의 [짐바브웨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증진 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짐바브웨는 전체 인구 중장애인 비율이 7%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죠.

아미재는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 치료 프로그램 도입과현지 재활치료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재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죠.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환하게 만드는 당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해!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10

##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10

### 짐바브웨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증진 사업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10

짐바브웨는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이 7%입니다.

5세 미만 장애 환아의 비율은 25%에 달하고

이 중 56%의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10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짐바브웨 장애아동 재활서비스 증진 사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10

집중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애 환아를 진료하고 현지 재활치료사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들에게 장애 인식 제고 및 돌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받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10

## KNOW YOUR AFF PROJECT

당신과 찰떡궁합 아미재의 사업은? 10







## 잠비아 선교 소식

허일봉 • 전미령 선교사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여기는 별이 너무나 따가운 요즈음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소식이 영적 긴장감을 갖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엡 6:13)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라며 (엡 6:10) 그간의 소식을 전합니다.

### 1. 제라 국제 성경 교회 (Zera International Bible Church)

지난 7월 9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라 대학의 책임자 이면서 침례교 목사님인 싱고고 교수가 목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교회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 몇몇이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부모가 다니는 교회 따라 그냥 여호와 증인이라 말하던 학생도 있고, 다니던 교회에서 상처입고 힘든 과정을 겪던 직원의 온 가족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라 교회가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2. 제라 국제 보건 대학 (Zera International College of Health sciences)

1) 7월에 새 학기를 맞으며 간호학과 신입생 20명과 임상의학과 8명이 입학했습니다. 학생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다 예쁘고 귀하게 보입니다. 나름대로 한껏 멋을 낸 모습들을 보면서 훗날 멋진 기독교 의료

인들이 될 모습을 그려봅니다. 그들의 멋진 모습 뒤에 학비를 구하지 못해 끙끙대는 어려움이 가려졌지만 회계부에서는 90%의 학생들이 학비 때문에 고민하며 상담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 아이 들이 학비 걱정 없이 학업에만 열중하도록 뒷받침해 주면 좋겠습니다.

2) 9월 29일엔, 간호학과와 가관식과 임상의학과와 흰 가운식 (White Gown ceremony)을 겸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생들은 나이팅게일 선서를 했고, 임상의학과 학생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습니다. 각과 학년별로 우수 학생들에게 시상을 했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그들의 미래에 대해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3) 학장인 Dr.아이린이 간호학과 학생 '사라 찰웨'를 데리고 10월 22일~26일 동안 가나에서 열리는 국제 기독교 간호협회의 아프리카 지역 컨퍼런스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회의 주제는 "선교사로서의 기독교간호사/조산원-기대와 도전"입니다. 사라는 아직 학생이지만 이 대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꿈을 가지며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와 친구들에게도 도전을 전해줄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기독교 간호 지도자들을 만나 목회간호, 간호 리더쉽 등 여러 영역의 논제들을 대하며 주님주시는 큰 비전을 갖길 바랍니다. 특별히 잠비아 대표가 아파서 참석이 불가능해져 Dr.아이린이 대회 중 연설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지혜롭게 말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뉴욕 그루터기에서 사라의 컨퍼런스 참석 경비를 후원해 주어 감사드립니다.

4) 계속하여 대학 본관과 기숙사 건축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잠비아는 8개 국가로 둘러 쌓인 내륙 국가인데 주위의 어느 나라보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어 주위 이웃 나라 정부에서 학생들을 보내겠다는 소식도 오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기숙사 시설이 아직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직원과 학생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결재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 3. 치소모 병원

17년 동안 저희와 함께 일했던 다니엘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사정이 너무 복잡하여 병원 일에 몰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든든히 서서, 함께 했던 세월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은 새로운 관리 과장이 필요한데 시간을 갖고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께서 신실한 이를 새로 보내 주시길 기도합니다.

### 4. 카젬바 진료소와 유치원

카젬바 진료소의 책임자인 엘리나 간호사가 심장에 물이 차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26년 동안 카젬바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지난번 유방암수술 치료 후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 5. 그밖의 일들

1) 치소모 거리의 아이들 센터의 아론 목사님이 7월말에 갑자기 심하게 항문 출혈을 하면서 배가 아프다고 해 급하게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초음파, CT 촬영, 위, 대장 내시경 등등 많은 검사를 받았는데 여러 부위에서 조금씩 이상이 발견되어 치료 중입니다. 특별히 왼쪽 신장의 있는 결석은 가끔 심한 통증을 일으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로 진찰, 검사비가 걱정이었는데 평소 후원해 주시던 권사님네 가정에서 모든 경비를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론 목사님이 건강하게 사역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 거리의 아이들 센터는, 지난주에 새로이 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집값을 절반만 지불하고 사정을 해서 먼저 이사를 했는데 나머지 집값 절반도 주님이 속히 채워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3) 저희는 미국 달라스에 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초청으로 10월 16일~11월 9일 동안 미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뉴욕 그루터기에도 들려 그동안 기도하시며 후원해 주신 분들을 만나고 올 예정입니다. 10월 27, 28, 29일에 있을 빛과 소금의 교회 선교대회 때 그동안의 선교 사역에 대해 말씀과 보고, 간증을 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행여나 자기자랑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학자의 혀를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증인으로서 말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9월 초에 컨테이너가 출발해서 지금 한창 잠비아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는 모잠비크의 베이라 항에 도착해서 육로로 루사카까지 올 예정인데 아마도 저희가 미국 방문 중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독수리 동지 재단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더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벧후 3:12) - 선교는 예수님 오실 날을 단축하는 귀한 일입니다. (speed its coming) 이 일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며 주님 안에서 안녕히 계세요.



## 우간다 선교 소식

김세현 • 노미정 선교사

“정말요?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요?”

1. 작년 7월에 이곳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으로 자녀의 질병이 치유되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더 예배시에 간절함이 두드러졌습니다. 8년간 자녀가 없다가 성도들의 기도 후 응답받아 자녀 2명을 가지게 되었음을 고백하기도 한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뼈가 나올 정도로 육체의 고통이 심하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고침 받고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합니다.

2. 아울러 담임 목사님은 교회가 자라온 과정을 설명하며 이미 더 깊은 마을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찾아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였다는 고백도 합니다. 현재 있는 교회 부지조차도 3년 동안 교인들이 조금씩 헌금하여 구입했다는 아름다운 소식도 나눕니다. 아프리카 성도들 ... 참 고맙습니다. 넉넉해서가 당연히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이들에게서 오히려 선교사는 대화 중에 감사와 감동 은혜를 받습니다.

3. 미국 아프리카 미래재단 사무총장으로 수고하시는 나삼진 목사님(에반겔리아 교수, 샬롬교회 담임)께서 목회와 교수 사역 그리고 또한 NGO 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처리에 분주함을 늘 느낍니다. 선교사의 수고에 잊지 않고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기도로 동역함을 선교사로서 아주 자랑스럽고 고맙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주된 사역으로 병원 건축, 간호학교 설립, 의료팀 파송 등 주로 의료와 연관된 사역에 집중을 하는 단체인데, 지난 7월 18일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회당 건축과 우물도 간절히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곳 사정이 어떠한지 알려 주시면 주께서 길을 여실 것 같아요.” 행정에 밝으신 분이려 역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교회 위치, 주변 상황, 건축 예상 경비, 착공과 준공 기간, 현 교인 출석 수, 교회 크기, 목회자 여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연속적으로 왔습니다. 덕분에 선교사 역시 이 지역을 좀 더 잘 알게 되는 기회도 되었구요.

5. 파자교회는 1986년도 정부군과 반란군의 내전으로 아주 많은 백성들이 죽은 바로 그 현장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악령들이 움직여 길거리에 스스로 죽음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2012년도에 이 교회는 시작되었고 이때로부터 악령들에게서



많이 놓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숫적인 증가가 빠른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6. 드디어 후원자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우물은 동시에 할 예산이 못 되었지만 예배당부터 건축하기로 정했습니다. AFF아틀란타 지부에서 콩고 지역 피그미 족에게 조산병원과 간호학교 건축과 지원을 하였는데 지부장 이경호 의사를 통해 회원 되시는 예수 소망교회 한 성도께서 은퇴가 다 되어 가는 연세이신데 이미 오래 전부터 기도하며 헌금을 모아 오셨습니다. 교회를 먼저 더 간절히 건축 되기를 원하셔서 그것이 우간다 파자 교회 건축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7. 아프리카 성도들은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따름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감동에 모두가 순종으로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을 낳게 되었습니다.

8. 지난주 기공예배와 함께 파자 교회 성도들은 이미 건축 예정지에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기초를 위한 땅을 파는 일에도 적극 동참합니다. 연세 든 성도들은 기도로 동참합니다. 인부들 식사도 준비해 줍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하는 과정이 오버랩 되기도 합니다. 누구는 어디 까지, 누구는 어디까지 ...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박상은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 미국법인, 내년 서부분부와 동부분부로 분리 준비 AFF 미주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30일 저녁 동부에서 미국법인 이사들과 지부장이 모여 함께 AFF 미주사역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법인 이사장 김홍식 장로와 아틀란타지부 이경호 지부장, 김용훈 목사, 정태흠 장로가 함께 했고, 한국 AFF의 박상은 대표와 김억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내년 봄 미국 법인을 권리의 효율화를 위해 미서부분부와 미동부분부로 나뉘고 동부분부의 출범을 준비하는 모임으로, AFF 미주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모인 귀한 자리였다.

먼저, 한국 AFF 박상은 대표가 미주 AFF 서부와 동부이사회에 각각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 제안했는데, 타문화 및 언어장벽 등을 고려할 때 한국 AFF의 독자적인 사역보다는 지속가능사역을 위한 미국법인이 AFF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기존 의료진 네트워크에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영적사역 활성화, 미국의 다양한 리소스 활용, 보건의료와 교육 중점, 그리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다는 로잔 핵심가치 계승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AFF 미국법인 이사장 김홍식 장로가 이사회 운영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미주법인은 2019년 설립 이래 이사장 김홍식 장로(김홍식 내과 의원, 내과 전문의), 이사/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오렌지카운티 샬롬교회 목사), 이사 박석현(산호세한인장로교회 목사), 김정미(알리지과 전문의), Ester Lee, 석소정, 박상은 이사를 소개하였고, 향후 서부 이사회로 개편할 경우 산하 조직으로 LA, 산호세, 시애틀, 덴버, 텍사스를 관할할 것이며, 샌프란/산호세지부와 이사장 박석현 목사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전하였다. AFF 미주법인이 최근 재미고신총회 선교위원회와 MOU를

체결하여 아프리카 선교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음도 소개하였다.

아틀란타 지부(대표 이경호)는 현재 프로젝트 중심으로 건축 및 선교사 후원, 이사회 3명으로 DR 콩고에 조산병원 설립과 간호대학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동부와 서부이사회간의 소통 및 협력 방안에 대해 김억 사무총장이 제안했는데, 일단 동부와 서부는 별도 entity로 등록하고 실무적 협력을 지속하고, 향후 미주 선교사 대회 등을 통해 2년마다 정기교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어 미동부 본부가 준비됨에 따라 이 책임을 맡게 될 김용훈 목사가 지역교회 동원 계획을 나누었다. 10월 일 참석 예정인 지역 개교회들은 기존 선교에 열심이기 때문에 자체 프로젝트가 많아 직접 방문하여 motivate 되지 않으면 AFF 선교참여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고, 조직이 우선이라기 보다는 먼저 방문하여 사역을 시작하여 아프리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간역할로서 사무총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교회로 베다니교회(김영진 목사, 과거 사이판 목회), 헬로십교회(김대영 목사, 중국 선교), 김영봉목사가 동부이사회에 참여할 예정으로 소개하였다.

모임에서는 2024년 7월 초에 2박3일 일정으로 AFF 선교사 대회를 개최해 선교사 케어와 집회 인도를 하고, 이어서 짐바브웨, 말라위에서 중요사역을 돌아보고 현지 성경학교와 목회자 교육, child care, 음악사역을 하도록 하였다. 선교사대회에서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을 선교사대회 강사로 초빙하고 인근 사역에 참여함으로써 AFF 이해도 높이고 motivation을 강화하는 것으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 2023-제2차 이사회 소집, 이사회 인사 새 이사로 Ester Lee, 석소정 이사 2인 선임해

아프리카미래재단 미국법인은 2023년 2차 이사회를 갖고 이사회를 일부 개편하였다. 9월 11일 저녁 브레나팍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김홍식 장로와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 박석현 목사, 김정미 이사와 두 신임이사들이 참석하였고, 이사로 사의를 표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김남혜, 김광식 이사의 사면을 수리하고, 새로 Ester Lee 이사와 석소정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3년도 8월까지의 경과 보고와 재정 보고를 받고,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선교위원회와 선교협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현장에서 AFF 미국법인 이사이기도 한 위원장 박석현 목사와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한국 AFF에서 추천한 이집트 난민사역은 선교사의 사역은 자료를 충분히 열람한 후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추가 사역 계획을 받고 6천 달러를 일시 지원하였다. 앞으로 이사 증원을 추진하고 연 4회 정기이사회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 선교사를 위한 여러 지정헌금 담지 2023 재정 중간보고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2023년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1월부터 8월 말까지 재정 보고를 하였는데, 지금까지 총 142,482불이 모금되었고, 이보다 많은 152,072불의 지출이 있었다. 사업비 지출로 마다가스카르지부와 남아공 지부에 각 3,000불, 남아공 김경환, 김재수 선교사 우간다 김세현, 이성철 선교사에 각 2천불, 특별사업으로 말라위 백영심 선교사, 잠비아 제라보건대에 3,000불씩 지원되었다. 회원들이 지정한 헌금으로는 명성의과대 체육관 건축비 42,000불, 짐바브웨 어린이재활병원 사업비 20,000불를 비롯하여, 김경환 선교사, 문홍량 선교사, 마다가스카르 이재환 선교사 등 총 83,671달러가 지출되어 지난 열 달 동안 선교지에 보낸 금액은 120,171달러였다. 그 외 사무비, 홍보비, 선교지 방문 등 행정비가 31,900불이 지출되었다.

Healthy Africa, Dreaming Africa

2024 AFF 17th 기념 선교대회(가칭)/비전트립

# 17년을 달려 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월) ~ 7월 13일(토)  
비전트립 전체 일정

2024년 7월 3일(수) ~ 7월 6일(토)  
AFF 17주년 기념 선교대회

30일(일)	1일(월)	2일(화)	3일(수)	4일(목)	5일(금)	6일(토)
	워싱턴 기준 오전 11시 출발 아디스아바바 경유	잠비아 루사카 도착 치소모 병원 탐방 리빙스톤 탐방	17th 기념 AFF 선교대회 빅토리아 폴스			짐바브웨 이동
7일(일)	8일(월)	9일(화)	10일(수)	11일(목)	12일(금)	13일(토)
짐바브웨 사역 탐방 성경학교 목회자 리더십 학교			말라위 사역 탐방 성경학교 목회자 리더십 학교		말라위 출발 아디스아바바 경유	미국 도착

\* 참가 비용은 참가 인원에 맞추어 선정 후 안내드리겠습니다.  
\* 일정 및 비용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아프리카미래재단 사무국으로 연락 주세요.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주최/주관: 아프리카미래재단 한국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 서부법인/동부법인  
예약문의 및 참가 신청: 아프리카미래재단 | T. 031-342-9182 Email. aff@africaff.org

## 아프리카 선교대회 준비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2024년 7월 초 AFF 17주년 기념 아프리카 선교대회를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하고, 잠비아와 짐바브웨 및 말라위 선교 사역을 가질 예정이다. AFF 파송 선교사 및 협력선교사들과 미국법인과 한국법인의 임직원이 함께 할 이 선교대회와 현지 사역은 짐바브웨와 말라위 두 나라에서 성경학교와 목회자 리더십 학교를 개최하며, 현지에 적합한 선교사역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 선교대회를 개해 미국 법인과 한국법인은 각각 그동안 아프리카 미래재단 사역에 함께하였던 이들을 중심으로 선교지 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김정미 이사, 문홍량 선교사에게 5천불 헌금

이사 김정미 권사는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에서 사역하는 문홍량 선교사의 선교비로 5천 달러를 헌금하였다. 김정미 이사는 이사장 김홍식 장로와 함께 아프리카명성병원과 의과대학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특강을 실시하여 미국의 선진의료의 전수하고 있으며 문홍량 선교사의 사역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 두렘돈장학금 수여

두렘돈장학재단(회장 조진휘)에서 지난해에 이어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보내왔다. 10월 7일 오후 5시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에서 조진휘 회장의 사회와 김창군 목사의 설교로 두렘돈장학재단 24주년 감사예배를 갖고, 이어서 진행된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구본숙 선교사 등 12명과 함께 아프리카미래재단과 니카라과 신학생 장학금을 전달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나삼진 사무총장은 이날 지난해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우간다 신학생 5명과 선교사를 지망하는 남아공화국 천준혁 선교사의 세 아들이 공부하는 미국 에반겔리아대학에 장학금을 지불하였음을 보고하였고, 장학재단은 보고에 감사하며, 장학금 운용을 AFF에 맡긴다고 하였다.



### 우간다 파자교회당 건축 11월 12일에 준공예배 예정

AFF 아틀란타지부에 속한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가 우간다에 어머니의 이름으로 교회당 건축해 헌당하게 되었다. 9월 초에 공사허가를 받고 건축 공사를 계속한 결과 두 달만인 10월 말에 건축을 완료하고, 지금은 11월 12일에 현지에서 입당예배를 갖기로 하고 막바지 페인트 작업 등이 진행중이다. 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는 2만 달러를 현금하여 건축하게 했고, 헌당식에는 식사와 필요한 경비를 제공하여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 일은 아프리카미래재단 우간다 협력 김세현 선교사가 실무를 맡아 준비하였고, 그가 가르치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2012년부터 목회하고 있는데, 300명이 모이는 건실한 교회로 자라게 되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연결이 되었다. 이 일은 아프리카미래재단 아틀란타지부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진은 선교사 통신 6면에)

### AFF USA, KPCA와 선교 협약

아프리카미래재단USA(이사장 김홍식)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위원회(위원장 박석현 목사)와 9월 11일 선교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기관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교환하고 아프리카 선교 활성화를 위해 여섯 개 항에 합의하고 협약서를 교환했다. 양 기관은 선교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임을 인식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협력하며, 아프리카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상호 정보 제공하고, 양 기관이 사역자를 상호 협력선교사로 받아 사역 정보 제공과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며, 새로운 선교지에 사역자를 파견하고자 할 때 상호 정보 제공하고, 긴급상황시 상호 지원하기로 하며, 협약서는 한 기관의 개폐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협약했다. 이 협약서 서명은 양 기관 김홍식 이사장과 박석현 위원장이 대표로 서명하였고, AFF USA에서는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가 함께 했다.

# 한국인 선교사들의 사역 현황과 아프리카 선교사케어



나삼진 목사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사무총장)

오늘날 세계 선교는 미국교회 다음으로 한국교회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한국선교협의회(KWMA)가 주관하고 한국선교연구원(KRIM)이 2022년 11-12월에 실시한 2022년 한국선교 현황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는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에서 169개 나라에 22,204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이것은 10년 전 169개 국가에 25,665명을 파송하던 때에 비해 3,400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한인교회에서 파송한 한인 선교사들은 집계된 통계가 없어 알 수 없다.

한국인 선교사들은 지역별로 아시아 59.4%, 북미 9.2%, 유럽 8.9%, 아프리카 8.7%, 중동 4.7%, 남미 4.6% 등의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미국 1,655명, A국 1,547명, 필리핀 1,328명, 일본 1,250명, 태국 1,006명 등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나라들이다. 60%의 한인 선교사들이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 골고루 분포되어 사역에 힘쓰고 있다.

또 중점적인 사역을 보면 교회 개척 10,849명, 제자훈련 5,699명, 지도자 양육 2,774명, 현지 교회 협력 2,404명, 교육선교 2,013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화·스포츠 800명, 의료선교 659명, 비즈니스 623명으로도 다양하게 사역하고 있다.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들이 지역전도와 교회 설립이 중점적인 사역이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사역이 다양해져서 교회 개척은 물론 제자훈련이나 현지 지도자 양성에 큰 관심을 갖고 선교하고 있다.

선교사들의 연령별로는 50대 39%, 60대 23%, 20-40대 34.5%인데 은퇴선교사도 202명에 달한다. 62%에 달하는 50,60대 선교사들이 20년 내에 은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에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지금 한국교회가 늙어 가듯이 세계 선교도 늙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 선교사의 8.7%, 1,930명이 사역하고 있는 아프리카는 거대한 대륙이다. 가장 축복을 받은 땅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아픔을 가진

대륙이고, 풍부한 자원이 땅속에 묻혀 있지만 나라가 가난하여 이를 개발할 수 없고, 가장 풍요로운 땅을 가지고 있지만 풍요한 생산으로 열매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아프리카 대륙 곳곳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고 있고, 이들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나라마다 선교사마다 형편이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선교사들에게 넓은 땅을 주어 지역개발을 요청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지역에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여 교육에 풍성한 열매를 얻고 있다. 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는 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배움에 굶주린 학생들이 와서 배우고 자라 자신의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산재한 선교사들은 한국이나 미국을 떠나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동료들이 필요하고, 선교사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도 협력이 잘 되는 편이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사역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서북부, 동부, 중남아프리카로 나뉘어 선교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선교에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선교사대회를 개최하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고, 선교사 자녀들을 포함해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동역하고 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한국과 미국 법인은 힘을 합쳐 내년 7월 AFF 아프리카선교사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선교사대회에서는 잘 준비된 말씀을 듣고, 선교사들의 교체와 선교 보고로 사역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대회를 마치고 짐바브웨와 말라위의 선교사역 탐방과 성경학교 운영, 현지 목회자 리더십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AFF는 지난 몇 년 동안 중남아프리카 선교사대회(KOMISA)를 지원했는데, AFF에 속하거나 협력선교사들을 돌보는 이 선교사케어 계획은 AFF 아프리카 사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 \$250)
- 714-732-1484 (미국) +82) 31-342-9182 (한국)
- ✉ aff@africaff.org 🌐 www.africaffusa.org
- 🗣️ 📺 아프리카미래재단
- 📷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송금하실 때 (아틀란타지부 전용)
  - 은행 : Chase Bank
  - 계좌번호 : 462352621
  - Routing 번호 : 322271627

**선한 청지기들 2023. 7. 1 - 9. 30 / 재정 보고**

**헌금자 명단**

권태길 김동천 김은식 김응원 김인용 김홍식 / 김정미 나삼진 박광은 백형순 석소정 송은석 / 이원희 신영애 심재광 / 이경호 이승숙 이승희  
이홍철 장국현 최의석 태승남 한창훈 허지국 / 허영화 황길남 / 황로미  
Chong Kim, James Kim, Eun S. Kim, Ester Lee, Michelle Lim, Andrew Pae, Simon Paek, Song Young, Michael Yang  
산호세한인장로교회, 새벽이슬교회, 시엘 메드 스파, 신약국(신사라), 예수소망교회, 오렌지카운티살롬교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JJ물리치료(정정훈), ENL Service, Exalting Christ Church of Atlanta, Hope Family Medicine(이경호), Livingstone Home Health,  
Kani Han, Steve Lee, kenneth K. Lim, Suh Family Trus

\*혹시 이름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AFF 사무총장 (714-732-1484)에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 결산**

**수입부**

7월	31,850.00
8월	40,942.75
9월	7,290.00
합계	80,082.75

**수입부**

7월	24,500
8월	6,100
9월	4,900
수입합계	35,500

**아틀란타 지부**

**지출부**

교회당 건축 지정헌금	
	20,050
잔액	15,450

**지출부**

사업비1 / AFF남아공지부	3,000	사업비2 / AFF마다가스카르	9,300	행정비/인건비	2,743.50
AFF마다가스카르	3,000	문홍량	5,000	세금	556.00
김경환	2,000	김경환	4,000	CPA	150.00
김재수	2,000	사업비 1, 2 합계	32,300	은행수수료	180.00
김세현	2,000	행사비 / 연주회 외	1,122.19	지출합계	39,834.69
이상철	2,000	비전트립	2,783.00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www.africaffusa.org](http://www.africaffusa.org)

